Margaret Mahler and the Modern Implication of Separation-Individuation Theory

Geon Ho Bahn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마가렛 말러와 분리개별화 이론의 현대적 의미

반건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heory of Margaret S. Mahler and her colleagues is a cre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a baby. Recent neurobiological studies and infant research have necessitated modification of some of Mahler's work, but it still form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Conflicts can arise between the baby's natural temperament and the mother's parenting, which are later internalized into the child's intrapsychic conflicts. Through the child's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these conflicts help form his or her individual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By re-viewing Mahler's own childhood and family history, people can understand the origin of her important theory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s."

Psychoanalysis 2021;32(1):1-10

KEY WORDS: Margaret Mahler · Separation · Individuation · Emotional development · Mentalization.

Received: October 13, 2020 **Revised:** November 6, 2020 **Accepted:** November 11, 2020

Address for correspondence: Geon Ho Bah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23 Kyungheedaero-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858-8556, Fax: +82-2-957-1997, E-mail: mompeian@khu.ac.kr

서론

마가렛 말러가 주창한 분리개별화 단계 이론은 영유아기 정서발달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아정신분석가가 되기 전 소아과 의사로 수련받았던 말러의 경력은 아기의 정서발달 연구를 하기에 매우 유용하고 적절하였다(Bond 2008). 분리개별화 이론과 유아의 심리적 탄생 개념에 대해 수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일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말러의 이론이야말로 창조적이고 유아정서발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이론이다(Gergely 2000). 말러는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1938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 학자들이 아동 발달을 역동적으로 연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Geissmann 등 2004). 말러의 이론은 아동

을 분석한 자료뿐 아니라, 걸음마기 아이들을 오랫동안 직접 관찰한 결과에 근거를 둔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며, 그 둘의 관계 사이에서 아이가 겪는 심리 내적 갈등도 중심이 된다(Mahler 등 1975).

한국정신분석학회에서 마가렛 말러 특집 강의 중 '분리개별화 단계별 정신병리'라는 한 꼭지를 의뢰받고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말러의 이론에 대해 강의자로 나설만큼 충분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일일 것인데(Lee 등 2013), 말러가 이 이론을 연구하게 된 배경과 연구 과정에 대한 지식이 매우 희박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때 20여 년 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3회 마가렛 말러 국제 심포지엄 참석기가 떠올랐다(Bahn 2000). 제 1회, 2회 대회는 미국에서 열렸는데 3회 대회를 일본정신분석학회에서 유치한 것이다. 조두영, 이무석 선생님을 모시고 참석했었다. 참석기를 읽어보니 Phyllis Tyson, Robert Tyson 부부, Harold Blum, Salman Akhtar 등 내로라하는 분석가들의 강의도 듣고 소규모 모임이라 함께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식사도 했었다. 그때 만났던 William Singletary라는 분은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된 미국 뉴저지의 마가렛 말러 아동발달 재단의 현 회장이다. 당시 마가렛 말러에 대해 강의했던 Anni Bergman(백발이 성성한 노파)은 바로 마가렛 말러를 도와 분리개별화 연구에 참여한 아기들과 엄마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했던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십년 전 마가렛 말러 심포지엄 참석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ergman 여사의 강의 내용 중 말러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 중에 말러가 아기와 엄마의 양자 단위(dyad unit)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인자를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먼저 공감대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의 자서전적 기록, 특히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포함해서 정리한 뒤, 최근 분리개별화 이론의 추이를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분리개별화 단계와 관련된 정신병리를 검토하였다.

마가렛 말러(1897~1985)의 자전적 기록

마가렛 쉰버그 말러(Margaret Schoenberg Mahler)는 1897년 헝가리 소프론이라는 유대인 마을에서 지역공공의료기관장인 의사 아버지 Gusztav Schonberger와 오스트리아계의 Eugenia Weiner 사이에서 첫 아이로 태어났다(Coates 2004). 아버지와 대화는 헝가리어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는 독일어만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대단한 미인이었고, 자녀 양육에는 소질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특히 말러에게는 적대적이었으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였다. 반대로 4년 터울의 여동생 Suzanne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각별했다. 그러다 보니 말러와 동생 사이는 원만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동생 편에는 말러가 ‘어머니-자녀 양자 단위(mother-child dyad unit)’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는 항상 불행해 보였다. 말러의 아버지는 딸의 지적인 우수함을 자랑스러워했고 마치 아들처럼 여겼다. 16세가 될 때까지 말러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자신이 여성적이지도 않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생이 남자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 말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 폭 빠져들었다(Bond 2008).

1913년 같은 반 친구 Alice(훗날 Alice Balint)의 부모님 덕분에 헝가리 정신분석계의 거물인 Sandor Ferenczi, Michael Balint 등을 만났으며, 정신분석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Stepansky 1988).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Ferenczi 덕분에 아버지와 동등시각이 강화되었다. 고향에서 기본교육을 마치고 부다페스트의 이모 집에 살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 1916년 가을 부다페스트 대학에 입학하여 예술 역사를 전

공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음 학기는 의과대학에 등록하였다. 세 학기를 마친 뒤 소아과임상을 배우기 위하여 1919년 뮌헨대학으로 옮겼다(Bond 2008). 그곳에서 홍역 예방 혈청 연구 조수로 일하게 되면서 실험과 임상 연구에 눈을 떴고, 지도교수인 Rudolf von Degkwitz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다. 당시 반유대주의가 유행하면서 하이델베르크로 옮기게 되고 소아신경과 의사인 Jussef Ibrahim 밑에서 일하게 된다. Ibrahim 박사가 소아 환자들과 놀아주면서 진료하는 모습을 보며 소아진료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입원시켰고, 그날 밤 아이는 사망하였다(Stepansky 1988). 다음 날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 병원에 찾아온 아버지가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숲 속에서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그 나무가 바로 내 아이였다’며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훗날 말러의 ‘공생 이론’의 단초가 되었다. 1922년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으나 유대인인 까닭에 독일에서 의사면허를 위한 수련을 할 수 없어서 비엔나로 돌아간 뒤 그 곳에서 일 년 후 의사면허를 받았다. 이후 비엔나에서 약 3년여간 두 군데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상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Clemens von Pirquet의 아동병원에서는 청결과 격리를 위주로 아이들을 치료하였고, Leopold Moll의 소아치료소에서는 간호사들에게도 어머니 같은 돌봄을 강조하였다. 같은 병을 치료하더라도 생존율과 치료성과는 Moll의 병원이 훨씬 좋았다. 비엔나에서 일하는 동안 정신분석관련 잡지(Zeitschrift für psychoanalytische Pädagogik) 일을 하면서 알게 된 Willi Hoffer를 통해 비엔나정신분석학회의 August Aichorn을 소개받았다. Aichorn과 함께 비행청소년, 학대받은 청소년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정신분석 경력을 쌓게 된다.

1926년, 어릴 때부터 알았던 Ferenczi의 소개로 비엔나정신분석학회 Helene Deutsch에게 교육분석을 시작하였다(Coates 2004). Deutsch는 50세 전 만에 말러에게 ‘편집성 멜랑콜리아(paranoid melancholia)’라는 진단을 내리고 교육분석보다는 치료분석이 필요하다고 Aichorn에게 돌려보낸다. Aichorn과의 6개월의 치료분석 후 Willi Hoffer에게 수년간 분석 과정을 거친 뒤, 1933년 비엔나정신분석학회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녀의 첫 지도감독자였던 Grete Bibring과의 교류에서 아기와 엄마 사이에 무의식적 소통이 가능함을 배웠고, 이는 역시 ‘공생단계’의 발달 이론을 수립하는 단서가 된다. 이때부터 비엔나를 떠날 때까지 소아정신분석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1936년 39세 되는 해, 사업가인 Paul Mahler를 만나 결혼한다. 하지만 독일의 반유대주의는 점차 강화되고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기에 이른다. 유대인 탄

압을 피해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6개월짜리 영국행 비자를 받고 런던에 체류한 뒤, 1938년 10월 뉴욕행 배에 오른다.

뉴욕에 도착한 뒤 뉴욕정신분석학회 회원들로부터 푸대접을 받는 와중에 컬럼비아대학 정신분석연구소의 제안을 받고 진료와 연구에 몰두한다(Stepansky 1988). ‘Pseudoimbecility: A Magic Cap of Invisibility’(Mahler 1942)를 뉴욕 정신분석학회에서 발표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미국 이주 직후부터 부모님과 동생에게 미국행을 권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치 독일의 헝가리 침공 직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하였다. 여동생은 지인의 도움으로 유럽에서 피신하였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깊고 긴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전부터 알고 지냈던 Edith Jacobson은 슬픔에 빠진 말리의 친구가 되었고 치료분석을 통해 회복으로 이끌었다. 말리는 이때 경험을 과거 Willi Hoffer에게 받았던 분석보다 더 훌륭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편집증적 사고’ 경향을 말끔

히 해결했다. 컬럼비아대학 정신분석연구소와 필라델피아 정신분석연구소에서 강의와 지도감독을 맡아 활동하면서, 아기의 정서발달이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말리의 초기 연구는 소아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후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Table 1). 말리는 조현병과 유사한 정신병을 가진 아동과 그 어머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Mahler와 Gosliner 1955), 건강한 아기는 어떻게 개별적 실체감과 정체성을 획득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답을 찾기 위해 말리와 연구진은 소아정신증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외에 대조군으로 정상 아기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Pine과 Furer 1963). 이를 위해 미국립정신건강연구소로부터 대규모 장기연구기금을 수주하여 우수한 연구진을 보강하고 훌륭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지원 신청서에서 말리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세부 단계를 확인하고, 각 단계별로 전형적인 어머니-아기(母兒) 상호작용 유형을 찾아냄으로써 심각한 정서장애를 예방하는 데

Table 1. Major research and products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eparation-individuation theory

Year	Publications and grants	Authors
1949	Clinical studies in benign and malignant cases of childhood psychosis (schizophrenia-like). <i>Am J Orthopsychiatry</i> 19(2):295-305.	Margaret S Mahler, John R Ross Jr, Zira de Fries
1952	On child psychosis and schizophrenia: autistic and symbiotic infantile psychoses. <i>Psychoanal Study Child</i> 7:286-305.	Margaret S Mahler
1955	On symbiotic child psychosis: genetic, dynamic and restitutive aspects. <i>Psychoanal Study Child</i> 10:195-212.	Margaret S Mahler, Bertram J Gosliner
1957- 1964	The study of the natural history of symbiotic child psychosis, Masters Children's Center, grants from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with co-workers, Fred Pine, Anni Bergman, John McDevitt.	Margaret S Mahler, Manuel Furer as principal investigators
1963	Thoughts about development and individuation. <i>Psychoanal Study Child</i> 18:307-324.	Margaret S Mahler
1963	Certain aspects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hase. <i>Psychoanal Q</i> 32:1-14.	Margaret S Mahler, Manuel Furer
1965	Mother-child interaction during separation-individuation. <i>Psychoanal Q</i> 34:483-498.	Margaret S Mahler, Kitty La Perriere
1968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Infantile psych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argaret S Mahler, Manuel Furer
1971	A study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and its possible application borderline phenomena in the psychoanalytic situation. <i>Psychoanal Study Child</i> 26:403-424.	Margaret S Mahler
1972	On the first three phases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i>Int J Psychoanal</i> 53:333-338.	Margaret S Mahler
1974	Symbiosis and individuatio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i>Psychoanal Study Child</i> 29:89-106.	Margaret S Mahler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Margaret S Mahler, Fred Pine, Anni Bergman
1997	The continuity of conflict and compromise formation from infancy to adulthood: a twenty-five-year follow-up study. <i>J Am Psychoanal Assoc</i> 45:105-126.	John B McDevitt
2011	The story of Sam: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evelopment, transforming into and out of a perversion. <i>Psychoanal Study Child</i> 65:48-78.	Wendy Olesker

유용한 자원이 될 것임을 피력하였다(Mahler 등 1975). 말리와 동료들은 유아 정신병이 생후 첫 일 년의 후반부와 이 년 사이에 시작되며, 이 기간을 발달의 '분리개별화 단계'라고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1975년 '유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책으로 발행되었으며, 아기의 정서발달이 '분리-개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Mahler 등 1975). 이후에도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연구와 출판물을 계속하였다.

1985년 10월 2일 88세로 타계하였다. 그녀의 유해는 그녀가 사망하기 8년 전 남긴 유언에 따라 남편의 유해와 함께 1986년 8월, 고향인 헝가리 소프론 유대인 묘역에 있는 부모님 산소 곁에 안치되었다(Stepansky 1988).

마가렛 말리의 분리개별화 이론

첫머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순간과 개인이 심리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은 일치하지 않는다(Mahler 등 1975). 출생 후 아기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만 성숙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공생막(symbiotic membrane)으로부터 부화(hatching)한 아기는 개별화된 걸음마기로 나아간다(Mahler와 Furer 1963). 유아발달관련 연구 초기부터 말리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였던 Annemarie Weil과 Bertram Gosliner 등은 이 과정을 분리개별화 단계로 명명하는 데 동의하였다(Mahler 등 1975). 분리개별화 이론에 대하여 본 논문의 저자는 1975년 단행본 '유아의 심리적 탄생(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Mahler 등 1975)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였다. 이번 단락에서 소개하는 말리의 초기 분리개별화 이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정, 변형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면서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출생 직후 일차성 자기에 상태와 출생 후 6~36개월 사이의 분리개별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출생 직후 아기는 일차적 자기에 상태이며, 이 기간은 정상 자폐단계와 정상 공생단계로 나눌 수 있다(Mahler 등 1975). 출생 후부터 약 2개월간 아기는 외부 자극과 단절시켜주는 자폐껍질 autistic shell)에 싸여 있어서 외부 자극에 대한 리비도 집중이 거의 없으며, 배고플 때 외에는 거의 잠을 잔다. 이 시기는 심리적 과정보다는 생리적 과정이 절대적이다. 아기는 생리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생 이전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며, 극단적인 자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말리는 이 상태를 은유적으로 개념화하여 정상적 자폐단계(normal autism phase)라고 하였다.

생후 2~6개월은 정상 공생단계(normal symbiotic phase)로 이 시기에는 자극차단울타리가 모아 양자 단위의 공생회

로(symbiotic orbit) 주위로 확대된다. 아기는 엄마와 '공생적 합체(symbiotic fusion)'이며, 모아 공생 회로 주위의 공통 울타리 망상을 갖고 있다(Mahler 등 1975). 아기는 자기와 어머니를 단일체(공통 경계 지역 안의 두 개의 단일체)로 느끼게 된다. 단일체이지만 아기와 어머니가 갖는 공생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아기의 욕구는 절대적이지만,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욕구는 상대적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생이란 용어 역시 은유적이다. 생물학적 공생이라기보다는 아기 입장에서 단지 외부와 내부가 다르다는 것을 서서히 의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과정은 '정상' 공생이지만, 훗날 개별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공생적 아동 정신병이나 정신병적 붕괴상태는 정신병리적 '망상성' 공생이 된다(Mahler와 Gosliner 1955).

정상 공생단계 동안 아기는 점차 부화를 준비한다(Mahler 등 1975). 즉, 자신과 어머니의 공생 궤도 내부에 집중해 있던 아기의 관심은 잠에서 깨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차 외부 자극에 집중하게 된다. 생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부화는 공생단계를 벗어나 '분리개별화 단계'의 첫 단계인 '분화(differentiation)'단계로 이어진다. 생후 6~9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분화단계에서 아기는 친숙한 것에서 친숙하지 않은 것을 점검하는 인지기능을 발전시키고, 어머니 품속의 수동적 아기에서 어머니와 분리된 채로 어머니 근처에서 잠깐씩 지내기도 한다. 생후 9~15개월 사이의 연습단계는 기고 기어오르고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초기 연습단계와 두 발로 자유롭게 걷기 시작하는 본 연습단계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 아이는 어머니와 확실하면서도 급속한 신체 분화, 어머니와 유대감 형성, 어머니와 근거리에서 자율적 자아장치의 성장과 기능획득이 가능해진다. 본 연습단계 동안 아기는 독립보행이 가능해지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리비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적 자아와 그 기능을 돕는다. 아기는 자신의 능력과 자기 세계의 위대함에 도취되고 자기애는 절정에 이른다. 어머니와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줄어든다. 따라서 본 연습단계의 아기는 대부분 고양된 기분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가 방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저조해진다.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기를 달래 주려고 하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저조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생후 15~24개월 동안 아기는 두 발로 걷고 언어를 사용한다(Mahler 등 1975). 어머니로부터 신체적으로 멀어지는 능력이 늘어나고, 인지능력 향상에 힘입어 아기는 자신이 습득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게 된다. 연습단계에서 줄어들었던 어머니와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다시 늘어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이러한 변화를 의

미하는 회해단계(재접근단계)로 이름지었다. 화해기 아동의 행동 특징 중 하나는 어머니 따라다니기와 어머니로부터 달아나기이다. '따라다니기(shadowing)'는 어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림자처럼 어머니 곁에 붙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다니기와 달아나기처럼 상반된 행동은 어머니 품 안에 파묻히는 기대감과 그 대상에 의해 잡아먹히는(함입) 공포를 의미한다. 아이들의 따라다니기는 3세 후반에 대상항상성이 완성되면서 대부분 사라지지만, 화해기 단계에서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유용하지 못한 경우 따라다니기는 더 심해진다. 그럴 경우 발달에 필요한 걸음마 아동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후 자아기능 발달에 필요한 리비도와 건설적 공격성 결핍이 초래될 수 있다. 15~18개월의 초기 화해기에 아이는 자신과 어머니가 분리된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즉, 자기가 발견한 물건들을 어머니 무릎에 놓아주면서 자신이 흥미를 갖는 물건에 어머니도 같이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화해기의 중간 과정인 18개월 이후 아이는 어머니를 밀어내고 다시 매달리는 양가감정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 범위는 확대되고 분화된다. 화해기단계는 대소변가리기 훈련과 성정체성 문제 등으로 아이에게는 힘든 시기이다.

화해기 동안 아이는 자신과 어머니의 분리를 인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실제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Mahler 등 1975). 하지만 이제 아이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부모와 공생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망상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고통스럽지만 점차 자신의 위대함과 망상을 포기해야 한다. 즉, 이 시기에 아이는 위기(화해단계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감은 아이의 분리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아이는 불안을 통제하면서 자신이 잘 기능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으려 한다. 말러와 동료들은 Masters Children's Center에 걸음마 아기방을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최적 거리를 확인하였다. 화해단계 위기 동안 아이들은 어머니가 있는 곳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 했지만, 걸음마 아기방에서 불안을 달래는 방법(놀이 선생님이나 이야기 책 읽어주기 등)을 배우게 되면서 점차 자발적, 능동적으로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

24~36개월에 해당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두 가지 이중적인 과제를 달성하면서 완성된다(Mahler 등 1975). 첫째, 일생 동안 지속되는 명백한 개성화(자아정체성)의 확립, 둘째, 대상항상성의 획득이다. 첫째 과제는 자아의 구조화와 초자아 형성(부모 요구에 대한 내재화의 징후를 통해 확인)을 통해 자기(self)가 만들어지면 달성된다. 대상항상성은 애정 대상의 부재 시 그 표상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공격적 욕동과 리비도적 욕동의 융합을 의미한다. 대상항상성은 지속적, 긍정적 리비도가 집중된 어머니상의 내재화가 완성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대상항상성의 확립은 심리적 발달의 모든 측면을 섭렵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진정한 의미의 '심리적 자아 탄생'이다.

분리개별화 이론의 확장과 변천

말러의 이론은 관찰에 바탕을 둔 구체적, 경험적 산물이지만, 뇌기능에 대한 신경생물학, 유전학, 뇌영상학 분야의 발전과 애착이론, 발달 정신병리 연구, 유아 관련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말러의 고전적 이론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Gergely 2000).

첫째, 말러의 발달단계 이론 중 정상 자폐단계의 핵심을 이루는 선천적 자극차단울타리(inborn stimulus barrier)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초기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신생아가 폐쇄된 체제, 즉, 계란 속 병아리처럼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Mahler 등 1975). 이는 일차적 자기애로 자극차단 장치를 타고난다는 의미이며, 말러도 인정하였다. 말러 이론 중 초기 6개월간의 미분화단계[대상이 없는 정상 자폐단계, 전대상(pre-objectal)과의 정상 공생단계]는 자아 기능이 없어서 내부와 외부의 구분,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없는 단계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신생아가 낄 때부터 외부 자극을 향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에 대해 타고난 그리고 특별한 기대와 선호도를 보인다고 하였다(Gergely 2000). 동물실험에서도 흰 쥐의 경우 생후 14일까지는 소위 스트레스 무반응기라고 하여 이 시기에는 외부의 스트레스가 가해져도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고도 있지만(Walker 등 1986), Yoo 등(2004)의 실험에서는 생후 4일째 어미 쥐와 분리된 새끼 쥐에서 스트레스 반응 매개물질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면역반응을 보인 해마세포가 증가한 것은 출생 직후에도 외부 스트레스가 뇌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기들도 출생 시부터 사람 얼굴 형상에 타고난 민감성이 있으며, 여성 목소리를 선호하고, 특정 얼굴 모양(예를 들면 혀 내밀기, 입 벌리기 등)을 모방하는 능력이 있고,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며 볼 수 있고, 감각 반응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타고난다(Gergely 2000). 최근 이론가들은 말러의 타고난 자극차단울타리 이론보다는 타고난 우발상황 탐색기전(contingency detection mechanism) 이론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아기를 의자에 앉히고 두 개의 모니터에 하나는 아기가 다리를 까딱거리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다리

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모니터에는 아기 다리 속도보다 늦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줄 경우, 아기는 자기 다리와 같은 속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니터에 더 집중하였다(Bahrick과 Watson 1985). 심지어 생후 3개월된 아기도 속도를 구별하였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볼 때, 말리의 자극차단올타리와 일차적 자기에에 근거한 리비도 발달 이론 폐기는 적절하다(Gergely 2000).

둘째, 말리의 병리형태적 해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말리는 유아의 정상적 초기발달 형태를 고착과 퇴행 모델로 설명하였는데, 이 이론은 심한 정신증 아동 환자와 성인 경계성 및 자기에성 성격장애 환자들에서 관찰한 지식을 토대로 하였다(Gergely 2000). 화해단계의 고착 현상은 경계성 또는 자기에성 성인 환자의 전이에서 관찰되는 분리(splitting)와 투사라고 하였다. 이렇듯 정신병리가 있는 환자에서 관찰된 결과를 정상 아기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Gergely 2000). 또한 말리는 신생아들이 초기에 자기/타인(self/other) 구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상자폐, 정상공생 단계를 거쳐 화해단계의 양가적 성향(ambivalence)을 보이는 것이 유아기 공통 현상이라고 했으나, 애착 이론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일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기들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아기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Lyons-Ruth 1991). 말리의 이론이 각 사례별로 수백 시간의 직접 관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사례 수가 소수인 점은 이론을 일반화하는 데 걸림돌이다(Mahler 등 1975). ‘유아의 심리적 탄생’(Mahler 등 1975)에 소개된 다섯 명의 사례 중, 어머니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육아에서 불안정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기에 요약하여 소개한다.

사례 1. 브루스

브루스의 어머니는 임신 시부터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않을까 불안해 하였다. 그 불안은 아기에게 옮겨 갔으나, 브루스는 이렇듯 어려운 모자 관계에 대처해가는 능력이 뛰어난 아기였다. 연구가 종료되는 3세 말, 어머니와 아기 모두 불안하고, 긴장하며, 침착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불편해 보였다(Mahler 등 1975).

사례 2. 웬디

웬디는 셋째 아이였으며, 웬디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힘들어했다(Mahler 등 1975).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어머니 역할에는 자신이 없었고, 자신을 나쁜 어머니라고 생각하였다. 자녀들이 엄마 역할을 대신 해주는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고 강조하였다. 웬디의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웬디가 기복을 보이고 어려움에 압도되는 감정을 보이면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어머니는 가족을 위한 일보다는 외부 자선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였다.

사례 3. 테디

T부인의 셋째 아이였던 테디는 그의 어머니가 매우 힘들었던 상황에서 태어났다(Mahler 등 1975). 테디 출생 전 T부인은 친밀한 관계였던 친정아버지를 잃었고,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생후 14개월 된 테디의 형 찰리를 돌보는 데 시간을 쏟았다. 테디는 출생 후 외할머니가 돌봐주었다. 찰리가 퇴원하고 T부인이 테디의 엄마 역할로 돌아왔을 때, T부인은 우울하고 지쳐서 테디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관심만을 줄 수 있었다.

사례 4. 샘

샘은 선천적으로 운동발달이 늦었고, 그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 기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샘의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아기 요구 없이도 아기를 만족시켜 주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분이었다(Mahler 등 1975). 이들 모자의 사례에서 샘은 어머니에게 함입되지 않고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능한 아기였다.

사례 5. 돈나

돈나의 어머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완벽한 어머니였으며, 돈나도 생후 14개월까지는 어머니와의 일상적 분리에 잘 적응하였다(Mahler 등 1975). 생후 21개월째, 돈나는 간단한 수술을 받았고, 이 주일 후 그녀의 오빠가 편도선 수술을 위해 엄마와 함께 입원하면서 돈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밤새 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전후로 돈나는 재접근 시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생후 28개월, 요로감염이 있었고, 평소 돌봐주던 남자 의사 대신 여자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경험은 돈나의 거세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렇듯 생후 20~30개월 사이의 외상충격이 돈나의 공격성의 점진적 중립화를 방해했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이상의 분리불안과 금지가 뒤따랐으며, 일시적이거나 승화가 힘들었을 것이다.

분리개별화 단계별 장애와 파생되는 정신병리

아기가 건강하게 정서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갈등, 환경과 상호작용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고 단계별 발달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Mahler 1972). 말러 이론에서 각 단계별 발달에서 중요한 공통 성분은 믿을 만하고 지속적인 중요한 타인의 유용성 여부이다.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거나 간병을 받게 되면 아이와 부모 사이에 상호작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정서발달단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습능력 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Frankish 2015).

1세 아기는 결합에 대한 바람과 잡아먹힘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양가적 불안을 느낀다. 아기의 자아 기능 중 하나는 이러한 두 가지 불안 사이에서 자아와 대상(엄마) 사이에 최적 거리(optimal distance)를 유지하는 것이다(Mahler 1972). 최적 거리란 아기가 엄마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 인지 및 사회기술에 대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엄마와 아기 사이의 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Shapiro 1985). 최적 거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면 엄마와 아이는 서로 불안을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허용 거리(tolerable distance)를 찾아내야 한다(Shapiro 1985). 허용 거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첫째, 아이의 애착 갈망을 일부 충족시켜 주고, 둘째, 잡아먹힘에 대한 공포로부터 안심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허용하고, 셋째, 가까운 거리이므로 분리와 유기에 대한 불안을 줄여 최소화한다. 엄마가 아이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가 또는 과도한 독립성을 요구한다는가 하면 아이는 허용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어린 시절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최적 거리/허용 거리 유지와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성인기에 반복 행동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Shapiro 1985). 반복행동은 분리 극복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자발적, 융통성, 현실적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개인의 능력 발달 저해 요인이 된다.

문헌에 소개된 사례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분리개별화 발달단계의 문제가 어떻게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인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제시한다.

사례 1. 분리개별화 실패 아동

엄마가 보기에 세 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매달리고 기대는 것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정글짐에 올라가는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Shapiro 1985). 아이는 엄마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혼자 시도해보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겁이 난다. 공포심에 엄마를 찾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고 엄마는 아이한테 실망했다고 말한다. 엄마가 화를 낼수록 아이는 무서워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엄마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는 의존과 무력감을 호소한다. 분리불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아이는 성취감을 포기한다.

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 전문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강박적인 자신에 대한 의심과 자기파괴적 행동 때문에 성

공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한다. 무력함을 내세워서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꾸짖는 엄마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 대화를 되살려야 애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은 어린 시절의 부모상과 재결합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상징한다.

사례 2. 미해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개별화에 실패한 여성

외동딸의 아버지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항상 연주 여행을 다니느라 집을 비울 때가 많아서 아이는 어린 시절 엄마와 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자랐다(Shapiro 1985). 볼썽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자기보다 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망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남자를 사귄 때 유부남이나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선택하였다. 조건이 좋고 미혼인 남성과의 데이트는 뭔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다른 여자가 있는 남성과의 교제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린 소녀이고, 다른 여성은 엄마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아버지와 성적 결합을 상징하고, 남성이 다른 여자에게 돌아간 뒤 혼자 남겨지는 고통은 금지된 오이디푸스기의 공상에 대한 처벌이다.

사례 3. 유아기 외상충격과 분리불안이 지속된 여성

말러의 동료들은 생후 3년간의 분리개별화 연구에 참여한 아기와 엄마들 중 1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하였다(McDevitt 1997). 일차 추적 연구는 잠복기에 진행하였고, 20대 중반에 두 번째 추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중 앞서 소개한 돈나의 추적 경과를 소개한다. 돈나의 경우 연구의 초점은 두 살 때 아기가 겪은 정신내적 갈등과 타협형성의 과정, 그리고 정신증상의 성인기 경과 및 지속성 여부였다. 최초 연구 종료 시 연구진은 세 살 된 돈나에게서 평균 이상의 분리불안을 인지하였으며, 돈나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Mahler 등 1975).

첫 추적 연구 당시 여덟 살 반이었던 돈나는 여성스럽고 매력적이었으나 슬퍼 보였고 수줍음이 많았다(McDevitt 1997). 돈나는 자기가 왜 수줍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학교 교사는 돈나가 학급에서 중간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지만 읽기에 문제가 있었고, 자발성이나 독창성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25세에 진행된 돈나의 추적 연구에서 돈나는 어릴 때 있었던 요로감염 때 남자 주치의 대신 만난 수줍어하는 여자 소아과선생을 기억하고 있었다(McDevitt 1997). 돈나는 수줍음이 많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를 힘들어하였으며, 가끔 기분이 처지는 경우가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대학 졸업 후

비서로 잠깐 일하였으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었다. 가까이 지내는 여자친구들은 여럿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없었다. 여자친구들에 대해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증상은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석치료 과정에서 질투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돈나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해서 치료 종결을 원했다. 증상의 근원은 오이디푸스기의 엄마와의 경쟁에서 유발된 소망과 두려움의 일부였다.

사례 4. 유아기 분리개별화 단계 발달 이상으로 발생한 성도착증

앞서 소개한 말리의 생후 3년 분리개별화 연구에 참여했던 샘은 발달이 늦었고, 그의 어머니는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를 보였다(Olesker 2011). 어머니는 아기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기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연습단계와 화해단계에 아이는 어머니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상태가 좋아 보였다. 아기는 3세말 오이디푸스 소망을 시사하는 행동문제를 보였다. 어머니에게 어른처럼 키스하면서 “내가 아빠다. 나 당신에게 키스해.” 이후 크고 힘센 배트맨이 되기도 하고 공룡이 되기도 했다가 금세 맞을까 봐 겁에 질리기도 하였다.

열 살 때 시행한 심리검사와 면담에서는 현실검증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아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를 나타냈다. 꿈 이야기를 하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공황발작을 보이기도 하였다(Olesker 2011).

25~27세에 실시한 심리평가와 면담에서는 여성의 반응 없음에 대한 심한 분노 좌절을 보였다(Olesker 2011). 성관계 하는 그림을 그렸고, “고추가 너무 작네, 더 커야 고추처럼 보일거야.”라고 하였다. 또 다른 성행위 그림에 대해서는 “여자는 흥분하지 않았어.”라고 하였다. 기저에는 무반응, 박탈감과 연관된 우울감이 있었다.

27~28세 동안 38시간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Olesker 2011). 샘은 14세부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밖에 나가서 소위 ‘바바리맨’ 행위를 하곤 했다고 하였다. 즉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행동을 멈출 수 없었다. 이러한 성도착행위는 유아기 외상을 증오하는 성적 형태일 수도 있으며(Stoller 1974), 공격성을 방출하고 죽음에 대한 느낌을 극복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Richards 2002). 치료적 심층 면담 기간 동안 샘은 여성 A를 만나면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다. 샘은 즉각 충족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었고, A는 샘을 정서적으로 이해해주었다. 이는 샘이 ‘바바리맨’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관계 형성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37세에 성인애착면담을 진행하는 세 번째 추적 조사 당시 샘은 A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사업적으로도 안정되었다(Olesker 2011). 샘의

사례는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분리개별화 경험에 따른 정신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훗날 적응 잠재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건강한 자아발달과 대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안정된 애착 관계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놀랄 만하다. 이는 애착 관계가 모든 관계에서 일반화되어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Olesker 2011).

사례 5. 분리개별화에 문제가 발생한 청소년기 아들과 아버지

이 사례에서는 40대 아버지와 고등학생 아들 사이의 2차 분리개별화 갈등을 통해 유아기의 분리개별화와 비교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머리를 기르고 염색하기, 패션 신경쓰기, 불량친구 사귀기, 성적 하락, 가출, 여자 관계 등 일탈행동이 늘었지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변화에 대해 어쩔 줄 모르고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Moon과 Bahn 2016). 아들은 여전히 부모를 좋아하지만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 뜻을 따르지도 않았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 말고는 아들은 나이에 걸맞는 부모로부터의 2차 분리개별화(Blos 1967) 과정을 경험하였으나, 오히려 아버지는 ‘친구’ 같은 존재인 사랑스러운 아들의 변화에 대한 아버지 입장에서의 3차 분리개별화(Colarusso 1990)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의사-아버지-아들 삼자 간 합의하에 아들의 정신과 입원치료를 결정하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는 상실감(대상 분리)과 이상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아픔(대상 개별화)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권위를 가진 존재(아버지)임을 동시에 인식하였다.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자기애적 좌절을 경험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점차 부모로서의 입장과 부모-자식 간 경계를 분명히 하게 되었고, 놀랄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을 선선히 수용하였다. 그간 아들이 부모의 뜻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반항 행동만은 아니었으며, 납득하지 못할 통제에 반대한 것이었고,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권위를 되찾은 아버지를 환영하였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하는 선택적 동일시(Jacobson 1964)를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분리개별화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며, 분리개별화를 경험하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원만한 분리개별화가 가능해진다는 동시성(synchroniza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Moon과 Bahn 2016). 앞서 기술한 말리 등(Mahler 등 1975)의 사례들에서도 동시성 개별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세 말경에 유아원에 다니게 된 브루스의 경우 발달장애, 자율성, 대상 관계 등은 모두 적절하였으나, 우울적 소인과 수동적 성향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본 저자는 브루스의 어머니에게서 동시성 개별화 달성이 어려웠던 이유를 찾아보았다. 브루스가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 직장 복귀를 희망했던 어머니는 둘째를 임신하였다. 그때부터 아이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는 등 분노를 표출하였다. 동생 출산 후 직장 복귀가 무산되고 육아 피로가 누적되면서 브루스의 화해단계 위기 조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브루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3차 동시성 개별화를 진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셋째 아이였던 웬디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두려워했다(Mahler 등 1975). 웬디의 언니도 말리의 연구에 참여했으므로 연구진은 이미 웬디 어머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웬디의 화해기 동안 어머니는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이는 어머니의 거리두기에 대해 풀 죽은 반응을 보였다. 3세 말에 뒤늦게 언어발달이 급성장하였으나, 대체로 웬디의 언어발달은 늦은 편이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도 늦어졌다. 웬디 어머니의 태도 역시 어머니로서 3차 개별화 동시성 부족으로 웬디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분리개별화 이론의 장기 종단 연구

1950~60년대 초기 분리개별화 연구 당시에는 Masters Children's Center에 마련된 실내 공간에서 각 아동에 대해 출생부터 3세 말까지 주 4회, 회기당 45분씩 생활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분석하였다(Mahler 등 1975). 당시 연구 기간은 9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진행되었다. 말리 사후 'The Margaret S Mahler Child Development Foundation'에서 동료 및 후배 학자들에 의해 그녀의 이론과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www.margaretmahler.org). 이 연구재단에서는 초기 연구 대상 아동의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추적 연구는 3~5세(심리검사, 연구용 면담, 학교 관찰), 9~10세(심리검사와 연구용 면담), 26~28세(심리검사와 연구용 면담), 37세(성인애착면담)를 대상으로 한다(Olesker 2011).

결 론

1940~1970년대 초까지 지속된 말리의 연구는 소아과의사이자 소아정신분석가의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정서발달단계를 규명하였다. 분리개별화 단계로 대표되는 그녀의 이론은 걸음마기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를 열어 주었다. 초기 말리 이론은 애착이론, 뇌영상연구, 유전 연구 등에 힘입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청소년기 개별화 이론에 이어 성인기 개별화 이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저자는 개별화 이론에서 아기 입장에서뿐 아니라 어머니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성 개별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수정 변형된 개별화 이론을 통해 분석가는 한 개인이 지나온 과정을 되짚어가면서 최초의 아기-엄마 관계의 흔적을 찾아내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교정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Acknowledgments

The theme of this article was presented at the online conference of the education for psychiatric resident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analysis on 17th October, 2020, Seoul, Republic of Korea.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o disclose.

ORCID iD

Geon Ho Bahn <https://orcid.org/0000-0002-3550-0422>

REFERENCES

- Bahn GH. The third international Margaret S. Mahler symposium in Tokyo, 2000. *Psychoanalysis* 2000;11:142-147.
- Bahrnick LE, Watson JS. Detection of intermodal proprioceptive-visual contingency as a potential basis of self-perception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985;21:963-973.
- Blos P.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 Study Child* 1967;22:162-186.
- Bond AH. Margaret Mahler: a biography of the psychoanalyst. Jefferson, NC: McFarland & Company, Inc;2008.
- Coates SW. John Bowlby and Margaret S. Mahler: their lives and theories. *J Am Psychoanal Assoc* 2004;52:571-601.
- Colarusso CA. The third individuation: the effect of biological parenthood on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es in adulthood. *Psychoanal Study child* 1990;45:179-194.
- Frankish P. Disability psychotherapy: an innovative approach to trauma-informed care. London: Routledge;2015. p.35-41.
- Geissmann CP, Geissmann P, Houzel D, Golse B. Histoire de la psychanalyse de l'enfant. Paris: Bayard;2004.
- Gergely G. Reapproaching Mahler: new perspectives on normal autism, symbiosis, splitting and libidinal object constancy from 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J Am Psychoanal Assoc* 2000;48:1197-1228.
- Jacobson E. The self and the object world.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1964.
- Lee SY, Moon DS, Chung US, Bahn GH. Harry Potter's pensieve and the unconscious. *Psychoanalysis* 2013;24:92-101.
- Lyons-Ruth K. Rapprochement or approachment: Mahler's theory reconsidered from the vantage point of recent research on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s. *Psychoanal Psychol* 1991;8:1-23.
- Mahler MS. Pseudomimicry: a magic cap of invisibility. *Psychoanal Q* 1942;11:149-164.
- Mahler MS. On the first three subphases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Int J Psychoanal* 1972;53:333-338.
- Mahler MS, Furer M. Certain aspects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hase. *Psychoanal Q* 1963;32:1-14.
- Mahler MS, Gosliner BJ. On symbiotic child psychosis: genetic, dynamic and restitutive aspects. *Psychoanal Study Child* 1955;10:195-212.

- Mahler MS, Pine F, Bergman A.**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NY: Basic Books;1975.
- McDevitt JB.** The continuity of conflict and compromise formation from infancy to adulthood: a twenty-five-year follow-up study. *J Am Psychoanal Assoc* 1997;45:105-126.
- Moon DS, Bahn GH.** The concept of synchronization in the process of separation-individuation between a parent and an adolescent. *Psychoanal* 2016;27:35-41.
- Olesker W.** The story of Sam: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evelopment, transforming into and out of a perversion. *Psychoanal Study Child* 2011;65:48-78.
- Pine F, Furer M.** Studies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hase: a methodological overview. *Psychoanal Study Child* 1963;18:325-342.
- Richards AK.** Sadomasochistic perversion and the analytic situation. *J Clin Psychoanal* 2002;11:359-377.
- Shapiro RB.** What cures: the therapeutic action of psychoanalysis (a symposium)—separation-individuation and the compulsion to repeat. *Contemp Psychoanal* 1985;21:297-308.
- Stepansky PE.** The memoirs of Margaret S Mahler. New York, NY: Free press;1988.
- Stoller RJ.** Hostility and mystery in perversion. *Int J Psychoanal* 1974;55:425-434.
- Walker CD, Perrin M, Vale W, Rivier C.** Ontogeny of the stress response in the rat: role of the pituitary and the hypothalamus. *Endocrinology* 1986;118:1445-1451.
- Yoo HJ, Yoon DJ, Chang HI, Song JY, Bahn GH, Chung JH, et al.** The effect of repeated maternal separation on glucocorticoid receptor and cyclooxygenase-2 in preweanling rat brain.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4;15:91-100.